



지능형 로봇 백만대 보급 목표 차질없이 추진

-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
- 제2차 첨단로봇 경제 전담반(TF)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26.(수)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2차 첨단로봇 경제 TF를 개최하였다. 첨단로봇 경제 TF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기업인,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산업부는 이날 제1차 회의(3.21)에 상정했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행계획 등 4개 안전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고하는 한편, 첨단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정부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상 ‘30년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특히 각 부처를 중심으로 제조, 의료, 안전, 건설 등 10대 분야에 걸쳐 부문별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첨단로봇 경제 TF 등을 통해 분야별 보급 목표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금년 내로 지능형 로봇법을 전면 개정한다. 로봇법은 ‘08년 제정 이후 16년이 지났으나 법 구조와 주요 조항들에 변화가 없어 급성장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속도에 뒤처진다는 산업계의 평가가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같은 신기술·신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조항들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 동향을 고려해 로봇산업, 로봇기술 등 용어 정의부터 전면 재검토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로봇 확산을 촉진하고, 로봇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기술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새롭게 정비한다. 또한 현재 인간 중심의 노동·교통·금융 등 관련법과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발굴하는 「로봇 제도 선진화 회의」 신설도 검토한다.

강경성 1차관은 “로봇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 신산업”임을 강조하며, “로봇기술의 진보 속도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로봇법 개정을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제 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제 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용민 (044-203-4310)
		담당자	사무관	박형태 (044-203-4318)
			사무관	이동윤 (044-203-4316)
			주무관	류재훈 (044-203-431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4.6.26(수) 15:00~16:20 /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
- 참석 : 산업부 1차관, 부처별 담당 국·과장, 민간 전문가 등

□ 주요 안건

안건 ① 제1차 TF 안건* 및 후속조치 경과 보고

- * 1차 안건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실행계획,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 ▲첨단로봇 규제혁신 실적과 추진계획, ▲첨단로봇 보급 확산 추진방향 등

안건 ② 첨단로봇 보급·확산 방안

- 4차 기본계획상 '30년 100만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로봇 보급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마련 방향 논의

안건 ③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 방향

- 급성장하는 로봇산업과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08년 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편 추진

- * 주요방향 : 로봇산업 및 기술 세분화, 체계적 안전관리, 규제개선, 지자체 협력 강화 등

□ 세부 일정

소요 시간	주요 내용	발 표
15:00~15:05 (05')	■ 모두 발언	1차관
15:05~15:15 (10')	■ (안건1) 제1차 TF 안건 및 후속조치	산업부
15:15~15:25 (10')	■ (안건2) 첨단로봇 보급·확산 방안	
15:25~15:35 (10')	■ (안건3)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 방향	
15:35~16:20 (45')	■ 토론	